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ce0a5370c8f2db6915de1e482e9d50c079565010079aef0541d9521fb31867a9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국제 금융 속보

국제금융센터
Flash News
2021. 9. 18

해외동향부 (제 6003)
오정석 | 전문위원(6231)

■ **주요 뉴스:** ECB, 금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. 지나친 공포심도 경계

○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.0%(yoy)로 10년래 최대폭 상승

○ 美 9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(예비치) 71.0, 예상치 하회

○ 美 민주당, 다음주 부채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취할 것

■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9월 FOMC를 앞두고 소비자심리지수 부진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0.9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2bp]

○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전반적인 관망세 속 상승모멘텀 부재로 하락

유로 Stoxx 600 지수도 통화정책 불확실성, 델타 변이 우려 등으로 0.9% 하락

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美 테이퍼링 우려 및 국채수익률 상승 등으로 강세 지속
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2% 하락

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음주 FOMC와 공급물량 경계감 등으로 상승

독일도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2.6원, +6.5원) 0.6% 상승, 한국 CDS 1bp 상승

		9/17일	9/1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32.9	4,473.8	-0.91%
	유럽	461.84	465.95	-0.88%
	중국	3,613.9	3,607.1	0.19%
	일본	30,500	30,323	0.58%
	한국	3,140.5	3,130.1	0.33%
환율	달러지수	93.25	92.87	0.34%
	유로화	1.1725	1.1767	-0.36%
	엔화	109.93	109.73	-0.18%
	위안화	6.4661	6.4576	-0.13%
	원화	1,175.3	1,171.8	-0.30%

		9/17일	9/16일	전일대비
국채금리 10y	미국	1.36%	1.34%	2bp
	독일	-0.28%	-0.30%	2bp
CDS 5y	한국	18bp	17bp	1bp
	중국	36bp	34bp	2bp
위험지표	EMBI+	353.89	353.13	0.21%
	VIX	20.81	18.69	11.34%
원자재	WTI유	71.97	72.61	-0.88%
	구리	424.6	427.9	-0.77%
	금	1,754.3	1,753.8	0.03%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**ECB, 금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. 지나친 공포심도 경계**

○ 귄도스 부총재는 공급문제가 지속된다면 금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밝혔고, 카자크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도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현재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

○ 마크루프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지금의 물가 상승압력은 일회성 요인들을 반영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퇴색할 것이라며 현재의 유로존 인플레이션 공포는 과장되었다고 평가하고, ECB의 인플레이션 대응력은 강하다고 언급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**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 10년래 최대폭 상승**

○ 8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3.0%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전월의 2.2%보다 상승폭이 확대. 근원 CPI는 1.6%로 예상치에 부합

○ Capital Economics는 앞으로 몇 개월간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, 연간으로는 ECB의 목표치 2%를 웃돌 것으로 전망

■ **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(예비치) 71.0, 예상치 하회**

○ 8월 기록한 `11년 이후 최저치인 70.3에서는 반등했으나 예상치 72는 하회. 12개월 기대인플레이션은 4.7%로 `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

○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은 젊은 연령층, 부유층, 교육을 더 받은 가계 등에서 지난 수개월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

○ 미시간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월의 급격한 소비심리 하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만, 반등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향후 경제전망이 우호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

■ **美 민주당, 다음주 부채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취할 것**

○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는 다음주 중에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표결을 계획하고 있으며, 임시지출안과 초당파적 인프라 법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

○ 유라시아그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으로 미국이 기술적 디폴트, 즉 자금부족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결제하는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

■ 美 **연준은 11월 테이퍼링 발표, 12월 시행 예상(전문가 서베이)**

○ Bloomberg의 52명 이코노미스트 대상 서베이에 따르면, 이들의 2/3 이상이 오는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2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. 파월 의장의 연임과 `23년말 첫 금리인상도 전망

■ 美 **FDA 자문기구, 16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반대**

○ 백신·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(VRBPAC)는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분명치 않다며 승인안을 16대 2의 표차로 부결. 권고안이나 FDA는 통상 자문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당분간 부스터샷 시행은 미뤄질 가능성

■ **중국 인민은행, 역레포 통해 1천억위안(약 18.3조원) 유동성 공급**

○ 7일물과 14일물 역레포를 통해 각각 500억위안을 공급한다고 발표. 만기 도래분 100억위안을 감안하면 순공급은 900억위안으로 지난 2월 이후 최대 규모

○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, 헝다그룹 파산설로 인한 시장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

■ 美 **바이든 대통령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과감한 행동 촉구**

○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고, `30년까지 메탄 배출을 `20년 대비 30% 줄이는 '국제메탄서약'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

주요 경제지표

■ **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17 현지시각 기준)**

○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(mom) : 0.4%, 7월(-0.1%), 예상치(0.4%)

○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: 71.0, 8월(70.3), 예상치(72.0)

○ 영국 8월 소매매출(mom): -0.9%, 7월(-2.5%), 예상치(0.5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oh@kcif.or.kr